

## Zbigniew Rybczynski 영상의 실험적 표현기법과 알레고리에 관한 연구

- I. 서론
  - II. 알레고리와 현대미술
  - III. 알레고리의 개념
  - IV. Zbigniew Rybczynski 영상에 나타난 알레고리
  - 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김윤경

### 초 록

본 논문은 즈비뉴 립친스키 영상에서 보여지는 알레고리와 실험적 표현기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대의 예술에서 다양한 해석으로 부각되는 실험애니메이션의 현대적 특성을 분석하고 독특한 영상구조와 기법으로 실험애니메이션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작품 탱고를 중심으로 알레고리 해석에 의한 이미지 차용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레고리를 통해 즈비뉴 립친스키 영상에서 나타나는 실험적 표현기법을 바탕으로 미니멀리즘의 대표적 표현경향인 ‘파편화’를 중심으로 즈비뉴 립친스키 영상에 나타나는 알레고리의 표현방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 Animation, Allegory, collage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21세기 영상미디어는 사회와 문화 전반의 시대상을 매체의 특성과 결부시켜 작품에 반영하고자 하는 미학적 시도와 실험들이 이어졌다. 다양한 미디어 철학의 개념과 더불어 매체적 실험과 장르의 혼합 등을 통해 동시대가 요구하는 미적인 표현양식의 확장과 다원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며 현대인의 삶의 조명한다. 영상미디어는 전통적 내러티브의 파괴, 시공간의 변형과 자기 반영성 등의 특징을 기반으로 영화, 텔레비전, 만화 등의 다양한 매체와 장르를 넘나드는 무규정성이 영상미디어의 주된 특성으로 부각되며 이러한 특성의 표현방식으로 ‘알레고리’ 개념을 토대로 삼고자한다.

알레고리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추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리스어로 ‘다르게 말하기’를 의미한다. 즉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대상 등의 표현수단을 통해 추상 개념의 감각적형상화로서 의미와 의미사이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제3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배경으로 크랙 오웬스(Craig Owens)는 알레고리를 본질적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polyvalent)을 지닌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적 특징들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다. 그는 알레고리를 ‘예술적 기법이자 예술적 태도이며 예술적 과정이자 예술적 지각활동이다. 잠정적으로 알레고리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알레고리는 하나의 텍스트가 또 다른 텍스트에 의해 중첩되는 모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sup>1)</sup>

---

\* 이 논문은 2012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2-0309)

1) Craig Owens, "Allegorical Impulse: Toward a Postmodernism", *Beyond recognition: representation, power, and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p.53-54.

홍창호, "현대회화에서의 알레고리와 복제 이미지 연구", 『한국아동미술학

알레고리는 이야기나 이미지가 중첩되는 경우에 발생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의 배치와 해체, 누적과 융합 등의 과정을 통해 이야기나 이미지는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현대예술의 숨겨진 의미와 속성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알레고리는 적합한 개념이라 사료되며 현대적 의미의 알레고리의 특징은 영상미디어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즈비뉴 립친스키(Zbigniew Rybczynski) 영상의 표현기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알레고리의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즈비뉴 립친스키의 영상이 형식적인 재현에서 벗어나 혼성모방과 이미지의 차용 등을 사용하여 사회, 문화와의 연관성을 내포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즈비뉴 립친스키의 영상에 나타난 실험적 표현기법과 알레고리에 대해 알레고리 이론을 토대로 살펴보고 그의 작품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표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알레고리적 관점에서 즈비뉴 립친스키의 영상에 나타난 실험적 스타일의 알레고리적 표현에 대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즈비뉴 립친스키의 영상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의미의 알레고리적 표현과 미학적 표현으로 살펴보는 것은 실험애니메이션 영상의 특징과 기법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표현과 기법의 연구는 사진과 영상 등의 매체적 경계를 넘어서는 확장되고 열린 개념으로서 실험애니메이션의 미학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즈비뉴 립친스키 영상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표현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즈비뉴 립친스키의 영상작품 중 탱고(Tango)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의 영상작품들에 내포되어

---

회지』, 11(2012), p.46 재인용.

있는 주제의 심층적 의미를 알레고리의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주제와 영상구조 그리고 표현기법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즈비뉴 립친스키 영상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표현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먼저 알레고리의 개념에 대해 ‘다르게 말하기’와 ‘형상과 의미의 불일치’라는 두가지 범주에서 철학자 벤야민의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알레고리적 특성이 현대미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포스트모던미술의 알레고리적 특성과 차용과 몽타주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에서 보이는 이미지의 차용, 불완전성과 파편성, 혼성적인 특징 등을 통해 현대미술 작품에 내재된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을 밝히고자 했다.

IV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알레고리 이론을 토대로 즈비뉴 립친스키 영상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표현특성과 그의 실험적인 영상기법에 대해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애니메이션의 창작영역을 알레고리 특성에 투영하여 실험애니메이션의 예술적 창작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알레고리와 현대미술

### 1. 포스트모던미술의 알레고리적 특성

알레고리는 지시하는 것(기표, signifiant)이 지시되는 것(의, signifié)을 그 자체에 담고 있지 않고 단지 규약을 통해서만 의미가 전달되며 ‘지시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편적 의미가 약속된 특정한 형태에 한정되어서만 표현이 가능했으므로 19세기 이전까지는 거의 예술적 가치를 부여받지 못했다.<sup>2)</sup> 하지만 19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인간

---

2) H.-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1960, 1975, S. 70. 권정임, “근대 미학적 ‘알레고

의 정신성 자체가 ‘동일성’, ‘보편성’ 보다는 ‘과편성’, ‘특수성’의 성향을 띠게 되면서 알레고리를 선호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알레고리는 보편적인 추상적 의미와 개념을 표현하는 것을 벗어나 개별 사상과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보편적 규약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개별 알레고리의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예술적 표현에서 상징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근대적 알레고리 개념은 그 본질인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성’이 더욱 첨예하게 다뤄지면서 ‘비동일성’, ‘이종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던 예술의 주된 표현방식으로 거듭 발전하게 되었다.<sup>3)</sup>

발터 벤야민은 “알레고리는 그 의미와 분명하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기호로서 미술에서는 기호와 의미가 뒤섞여 흘러가는 미적 가상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모든 사물, 모든 관계는 자의적인 또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sup>4)</sup> 알레고리적 이미지에 있어서 기표와 기의가 맺는 관계의 자의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며 이는 곧 형상과 의미의 불일치를 뜻한다. 표현된 사물이 알레고리를 구사하는 작가의 손에서 ‘다른 어떤 것’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다른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와 전통적인 의미의 연관 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맥락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표의 의미적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상세계 또는 사물 세계에서 사물이 갖는 가치를 제거해 버리면, 그 사물은 내용이 제거되어 버린 죽은 사물로 남게 되고, 작가나 비평가는 빈 사물에 새로운 의미를 집어넣게 된다.<sup>5)</sup> 그리하여 사물은 예술가, 즉 알레고리적인 관찰자가 부여하

---

리’ 논의의 포스트모던적 연속성과 현대성에 관한 연구”, 『미학·예술학 연구』, 26(2007), p.265 재인용

3) 권정임, “근대 미학적 ‘알레고리’ 논의의 포스트모던적 연속성과 현대성에 관한 연구”, 『미학·예술학 연구』, 26(2007), p.266

4) 문철, “알레고리 해석에 의한 글 없는 그림책 구성 요소의 안티노미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3(2012) p.137

5) 김길웅, “미적 현상과 시대의 매개체로서의 알레고리”, 『현대비평이론』, 14(1997), p.198

는 새로운 의미에 자신을 내맡기게 되는데 이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이는 즉, 형상과 의미의 불일치는 하나의 해석이 절대적일 수 없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또한 알레고리 자체의 특성이다.<sup>6)</sup>

근대적 알레고리 개념은 그 본질인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성’이 더욱 첨예하게 다뤄지면서 ‘비동일성’, ‘이중성’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던 예술의 주된 표현방식으로 거듭 발전하게 되었다.<sup>7)</sup> 포스트모더니즘은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총체성보다는 파편성 등을 주된 담론으로 전개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추구하는 ‘다양성’, ‘타자성’, ‘차이’, ‘다름’, 대상(객체)의 ‘무규정성’이 현대 예술의 주된 특성으로 부각되며 이러한 특성의 표현방식 혹은 표현형식으로 알레고리가 선호되고 있다.

알레고리적인 작품은 미학적 경계들을 넘나드는 종합적인 성격을 띤다. 이런 장르간의 혼합은 뒤샹(Duchamp)에 의해 예견된 것으로, 오늘날엔 이전까지 존재해 온 별개의 미술 매체들을 거리낌 없이 결합시킨 절충적인 작품들, 즉 잡종교배의 작품들 속에서 재등장한다.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의 컴바인 페인팅이 대표적이다. 컴바인 페인팅(combine painting)이란 추상표현주의적인 화풍에 갖가지 조각하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오브제들을 덧붙인 병치적 양식으로서 이러한 양식은 동원된 오브제들의 의미가 즉자적이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기 때문에 언제나 알레고리적 읽기를 필요로 한다.<sup>8)</sup>

컴바인 페인팅은 암탉이나 양고라 양, 독수리 박제, 페 타이 어와 모래 주머니 같은 잡다한 요소들을 회화의 요소와 함께 결합시킨 것으로 라우센버그의 1955년 작품 <침대>에서 잘 관찰된다.

---

6) 진중권, 『현대미학강의』, 아트북스, 2004, p.59

7) 권정임, 위의 책, p.266

8) 윤난지,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크레이그 오웬스, 조수진 역, “알레고리적 충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을 향하여”, 눈빛, 2004, p.196~197



그림 1. Robert Rauschenberg, Bed 1955.(왼쪽),  
Robert Rauschenberg. Monogram 1959. (오른쪽)

<침대Bed (1955)>는 실제 오브제인 침대의 틀 안에 누빈 이불, 침대보, 베개 등을 붙여 수직으로 세워 벽에 걸고 그 위에 물감으로 채색을 한 작품으로 거친 붓 자국의 흔적들이 뿌러지고 더해져 이제껏 보지 못했던 재료들이 이질적으로 조합되어 있다. 화려한 색감과 거친 붓터치는 침대를 더욱 불결하고 추하게 만들며 동시에 오브제가 가진 원래의 성격을 파괴하는데 일상과 예술이 합치되면서 조합된 라우센버그의 예술은 과거의 범주로 설명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표현기법을 사용했다.

<Monogram> (1955-59)은 판넬 위에 타이어를 두른 박제된 염소, 하이힐, 진입금지의 바리케이드 판넬 등과 같은 일상의 재료와 동적으로 표현된 원색의 물감이 더해진 작품으로 회화와 조각의 혼성상태로 새로움을 창조한 것이다. 단절된 요소들의 이질적 결합은 전통적이고 통일된 과거 미술에 대한 도전이며 버려진 사물들과 일상의 재료를 활용한 물성의 확대와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근본적 파괴가 형상과 의미의 불일치를 보이며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는 알레고리적 특성을 보인다.

벤야민이 설명한 알레고리의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적 현상에 부응한다는 특징과 연관된 특징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벤야민의 알레고리론의 많은 부분이 오웬스가 제기한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알레고리적 특성을 설명하는 토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 오웬스가 말하는 알레고리의 근원적 충동은 첫째, 알레고리가 과거와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러한 과거를 현재를 위해 되살려 놓으려는 욕구이며 둘째, 알레고리적인 이미지는 적절히 각색된 이미지로, 발명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차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셋째로 알레고리는 단편적인 것, 미완성의 것과의 끊임없는 친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넷째, 이 형식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회의 본성 및 개인의 사적인 역사성에 관한 수수께끼와 같은 물음을 불러일으키고 사물의 일시성을 보장해주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알레고리적 방법론은 내부에 유기적 제한을 갖지 않는 유동적 불연속체로서의 구조를 갖는 것이다.<sup>9)</sup>

## II. 차용과 몽타주

이와 같은 알레고리의 개념을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과 영상 등과 같은 현대예술에서 잘 드러내는 방식은 차용과 몽타주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작품에서 알레고리적 충동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차용을 통해서이다. 이는 본래 이미지를 과편화, 왜곡, 축적, 반복하고 부가물을 추가, 보충함으로써 원래 뉘앙스나 리얼리티를 박탈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리얼리티를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재현 이미지를 현대화시킬 뿐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이고 일상적인 그리고 대중적인 이미지와 병치시키는 이중성의 전략으로 현실을 초월, 변형, 교체시키는 것이다.<sup>10)</sup>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미지의 차용을 말하는 것이다. 알레고리를 이용하는 작가는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 1963-)처럼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 보다는 해석하여 끌어 모은다. 그렇지만, 단순히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시킨다. 이미지에 또 다른 의미를 첨가시

---

9) 홍창호, “현대회화에서의 알레고리와 복제 이미지 연구”, 『한국아동미술학회지』, 11(2012), p.47-48.

10) 홍창호, 앞의 책, P.48



키거나 제거시키는 것은 새로운 의미작용을 유발시킨다. 알레고리의 의미는 이전의 의미가 추가된 보충으로써 중복되면서 대신한다.<sup>11)</sup>

이와 같은 차용방식을 통해 발생하는 의미의 확대와 변형 그리고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해석과 새로운 의미도출 등은 혼란과 모호함을 야기하기도 한다. 관객은 작품의 지시내용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런 작가의 모호한 이중성이 관객에서 작품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알레고리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벤야민의 알레고리 개념은-물론 어원적인 의미에 기초하고 있지만-그의 인식과 사유, 비평 전반에 스며들어 있고 또한 그의 사유의 핵심적인 개념들과 연관되어 있어 단편적으로 규정될 수 없으나 ‘파편화된 사물의 조각들을 재구성하여 사물 속에 들어 있지 않은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본질로 한다.<sup>13)</sup>

몽타주는 이러한 알레고리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기법으로 유기적 총체성의 발터 벤야민의 작업 원리를 구현하는 핵심적 개념이다. 몽타주는 콜라주의 잘려진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균형과 질서를 이룬다는 조형원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입체주의와 미래주의 초기 콜라주에서 보여 지던 상이한 재료들의 병치효과인 단편들의 조립 즉, ‘컷(cut)의 조립’이라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콜라주는 하나의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소재를 전환시키는 기법이고 몽타주는 이렇게 차용한 것을 새로운 배치에 의해서 분산시키는 방법이다.<sup>14)</sup>

몽타주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시각화 시키려는 표현방법으로 조각이나 부분의 조합을 통해 다른 시각 공간을 만든다

---

11) 남택운, “사진의 세 가지 경로와 알레고리”, 『한국사진학회지』, 26(2012), p.14

12) 홍창호, 앞의 책, P.48

13) 권정임, “근대 미학적 ‘알레고리’ 논의의 포스트모던적 연속성과 현대성에 관한 연구”, 『미학·예술학 연구』, 26(2007), p.267

14) 김길웅, “미적 현상과 시대의 매개체로서의 알레고리”, 『현대비평이론』, 14(1997), p.160~164.

는 작업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표현은 조형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미지 조각들의 조합에 의해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즉 A라는 이미지의 조각과 B라는 이미지 조각의 조합으로 C라는 이미지가 탄생되고 A와 B의 의미가 아닌 전혀 다른 C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알레고리의 기본 개념인 ‘다르게 말하기’와 같은 비유적 수사어법이다.<sup>15)</sup> 이와 같이 단편적 이미지의 조립을 기본으로 하는 몽타주는 영상에서 부분들이 모여 새로운 법칙에 의해 조립되며 장면과 장면이 결합되어 완전히 다르게 읽혀지는 등 의미 조합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생성되기도 한다. 파편과 같은 잘려진 조각들이 모여 의미를 조합시키는 몽타주 방식과 같은 알레고리의 특성은 현대 예술의 텍스트들이 전통적인 의미를 지닌 작품을 해체시켜 제 3의 의미로 나아가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혼성모방과 이미지의 차용 등을 사용하며 파편화된 이미지의 재구성과 조립을 통해 그 자체로 다르게 말하기를 수행하는 즈비뉴 립친스키 Zbigniew Rybczynski 영상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에 나타난 실험적 표현기법과 알레고리에 대해 위의 알레고리 이론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알레고리의 개념

알레고리는 “상이하게 말함(versiloquium)” 혹은 다르게 말함(alieniloquium)”을 뜻하는 'allos'와 'agoreuein'의 합성어인 알레고리의 어원에서 알레고리의 의미를 추출하여, 첫째 '말이 뜻하는 것과 같지 않거나', 둘째 '말이 뜻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 으로 알레고리를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되는 알레고리의 목적은 표현이 지시하는 의미의 ‘매매성’을 통하여 ‘다의미(Polysemien)’를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알레고리에 들어 있는 다의미는 ‘이중적

15) 김민정, “다다주의의 실험적 조형성과 알레고리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2011), P.67

의미로서, 일차적 의미인 표면적 의미와 이차적 의미인 숨은 의미로 구성' 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알레고리에서의 의미 지시 방식이 표현의 직접성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불일치' 를 이루며, 양자의 결합은 단지 '관념적' 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sup>16)</sup> 따라서 알레고리는 문자 그대로뿐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법에 있어서 비유적인 방법이다. 알레고리는 일반적으로 수사법의 형태로 취급되지만 언어에서뿐 아니라 사실적인 회화나 조각 또는 구상미술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다. 다른 수사적 비유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알레고리는 은유(metaphor)보다 훨씬 길고 세부묘사에 있어 훨씬 풍부하다. 또한 유사(analogy)가 이성이나 논리에 호소하는 반면 알레고리는 작가의 상상력에 호소한다. 우화나 비유는 명확한 교훈이 있는 짧은 알레고리이다.<sup>17)</sup> 즉 어떤 주제 A를 말하기 위하여 다른 주제 B를 사용하여 그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주제를 나타내는 수사법, 은유법과 유사한 표현 기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은유법이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문장과 같은 작은 단위에서 구사되는 표현 기교인 반면, 알레고리는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총체적인 은유법으로 관철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sup>18)</sup>

‘다른 것으로 말하기’ 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듯이, 알레고리는 두 겹의 의미 층을 갖는다. 표면적인 의미로는 인물, 행위, 배경 등 통상적인 요소들을 형상화하여 일차적인 의미를 이루고, 그 내면에는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혹은 정치적인 개념과 같은 이차적 의미를 배치하는 것이다.<sup>19)</sup> 사전에 따르면, '어떤 주제를 그 위에 다른 주제를 입혀 은유적으로 다룬다. 추상적, 정신적인 의미를 구체적, 물질적 형식으로 표현한다.' 상징적인 내

16) 김민정, “미래주의의 실험적 조형성과 알레고리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1(2010), P.44

17) 이령, “현대화에조형의 알레고리 연구”, 『한국 화에디자인학 연구』, 19(2008), P.164

18) 두산백과 “알레고리(Allegory)”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 2013.10.01

19)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1&contents\\_id=3991](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1&contents_id=3991)  
2013.10.01.

러티브 예를 들어, 회화나 영화가 펼치는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상징이나 의인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상징이나 의인화는 2차적인 의미, 반쯤 숨겨진 의미, 혹은 도덕적인 메시지를 구성한다.<sup>20)</sup> 따라서 알레고리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다르게 형상화하거나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 등을 통해 직접적인 의미지시방식과는 다른 어떤 개념을 형태의 이미지 등으로 전환하는 표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까지의 초기 알레고리는 교훈적 혹은 성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으로서 서구 사회의 역사관 혹은 종교관을 우화적으로 풀어내는 수사적 장치로 사용되었다. 이는 본래 내용 전달 즉, 의미전달의 기능이 강한 표현방식으로 중세시대까지는 의미전달에 보다 더 그 기능이 컸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중세 미술에서 시각화를 통한 알레고리가 있었으나, 그것은 조형적이거나 미적인 차원에서의 알레고리가 아닌 어디까지나 의미전달을 위한 도상들에 불과했던 것이다. 기존의 문학과 미술의 알레고리에 있어서 강조된 것은 의미 전달의 차원, 즉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충실한 것이다. 이렇듯 중세시대에는 기존의 텍스트 혹은 글에 내재되어 있던 교화적이고 종교적인 메시지를 감각적인 조형적 요소를 살림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sup>21)</sup>

#### IV. 즈비뉴 립친스키(Zbigniew Rybczynski) 영상과 알레고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어로 ‘다르게 말하기’를 뜻하는 알레고리는 일반적으로 추상 개념의 감각적 형상화로서 표현 층위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미 층위를 내포하고 있는

20) 존 A. 워커 John A. Walker & 사라 채플린 Sarah Chaplin, 『비주얼 컬처』, 루비박스, 2004, p225

21) 김민정, 최인영, “현대에 있어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형성과 알레고리의 관계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7(2006), p.50-51

문학적, 조형적 표현수단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알레고리적 표현방식에서 표현 층위는 의미 층위에서 뜻하는 바를 전달하는 매개물로서 기능하며, 이때 매개하는 것과 매개되는 것 사이에 긴장관계가 발생한다.<sup>22)</sup> 이와 같은 알레고리적인 ‘다르게 말하기’는 작품에서 사물 고유의 연관관계를 해체하고 파편화되고 불연속적인 방식으로 조합하여 다양한 의미가 생성된다. 이에 즈비뉴 립친스키(Zbigniew Rybczynski) 영상에 내포되어 있는 주제의 심층적 의미를 알레고리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주제가 표현방식과 전체적으로 어떠한 상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할 때 토대로 삼고자 하는 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험적인 표현 기법과 반복이며

즈비뉴 립친스키 영상에서 실험적인 표현기법과 반복은 주제의 알레고리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창출하는 미학적 특성을 명료하게 드러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 작품의 주제를 우선 소외와 알레고리라는 층위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반적인 주제가 실험적인 표현기법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으며 이러한 주제와 구성이 어떻게 작품의 의미를 창출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Zbigniew Rybczyński, Film Tango, 8:14 mins(1980)

22) 임석원, “발터 벤야민의 영화 매체 이해와 알레고리”, 『브레히트와 현대 연극』, 24(2011), P.263

즈비뉴 립친스키는 실험 영상과 혁신적인 비디오 작품들을 발표한 작가로 오스카와 에미상을 포함한 수많은 영화제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으며 세 개의 MTV비디오뮤직의 수상과 함께 80년대 중반 뮤직비디오의 양식에 중요한 영향을 발휘한 작가이다. 립친스키는 애니메이터이며 동시에 카메라맨으로 전통적인 필름기법을 넘어서 다층적인(multi-layered) 전자이미지들의 선구자이며 자신의 예술적인 시각과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적인 실험과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립친스키는 그의 책 *A Treatise on the Visual Image* 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했다.

저는 필름을 만드는 동안 저의 아이디어와 예술적인 시각을 수행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이미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미지의 본질에 대한 저의 탐구와 분석을 실현하게 할 이미지들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툴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에 의해 저는 실험자도 되고 연구자도 되고 엔지니어도 되고 프로그래머도 되었습니다.<sup>23)</sup>

오랜 기간에 거쳐 제작된 다양한 립친스키의 작품들은 기하학적이고 동적인 움직임은 이미지들의 실험을 통해 동시대 리얼리즘에 대한 그의 급진적 시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1980년에 제작된 작품<탱고 Tango>(1980)는 1982년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립친스키의 영상이미지에 대한 실험정신을 잘 보여주는 대표작들 중 하나이다.

작품 <탱고>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없는 정지된 방 안에서 탱고의 타이틀과 함께 시작되며 창문너머 아이는 방 안으로 공을 던져 공을 줍기 위해 창문을 타고 들어오며 공을 집어 다시 창문을 넘어간다. 하지만 넘어가는 순간 공이 다시 들어오며 동작이 계속 반복된다. 첫 번째 인물 동작 장면의 두 번 반복이후 창문 옆

---

23) Zbigniew Rybczyński, 『A Treatise on the Visual Image』, Art Stations Foundation, 2009, p.54

방문이 열리고 아이를 앉고 있는 여인이 방으로 들어와 무대중앙의 탁자에 앉고 일어나서 아이를 침대에 눕힌 후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나간다. 역시 두 번의 반복이후 아까 아이가 등장한 창문을 타고 아이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남자가 등장한다. 이런 방식으로 36명의 인물이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동작들을 고정된 무대에서 같은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공간을 채우고 서서히 사라지다 결국 다시 처음에 시작했던 빈 공간만 남고 작품은 끝을 맺는다. 마치 탱고 음악의 변주를 듣는 듯 립친스키의 <탱고>는 영상에서는 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듯 인물들은 패턴을 형성하고 분리되는 듯 나타났다 사라진다. <탱고>의 인물들은 라이브 액션으로 촬영한 뒤 한 프레임씩 분해하여 작업한 것으로 <탱고>의 제작과정에 대해 립친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정된 카메라로 다른 시간에 존재하는 다른 인생무대의 36명의 인물들이 같은 공간에 교차하며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저는 약 16,000장의 셀 매트(cell-mattes)에 직접 페인팅을 하였고, 수십만 번의 옵티컬 노출 공정(optical printer)을 거쳤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하루에 16시간씩 꼬박 7개월이 걸렸습니다.<sup>24)</sup>

36명의 인물이 동선의 방해 없이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서 교차하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 인물들의 동작들은 크로마 키(chroma key)기법이 활용된다.

크로마 키는 컬러 텔레비전의 카메라에서 얻을 수 있는 RGB 신호를 이용하여 그 색(chroma)의 차이를 키(key)로 하여 빼내고 싶은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하고, 그것을 다른 화면에 합성하는 원리이다. 빼내고자 하는 피사체가 인물인 경우, 살색과 보색인 청색 배경 앞에 인물을 세워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출력에서 청색 성분을 제거하면 배경은 검게 되고 인물만을 빼낼 수 있다.<sup>25)</sup>

---

24) Zbig Rybczynski "Looking to the Future - Imagining the Truth," in François Penz, Maureen Thomas, Cinema& Architecture. Mplius, Mallet-Stevens, Multimedia, BFI, London, 1997

배경을 제거한 움직이는 인물들을 한 프레임 씩 셀 위에 옮기고 셀 매트(cell-mattes)와 옵티컬 노출 공정(optical printer)을 거쳐 합성하는 로토스코핑(rotoscoping)기법이 <탱고>의 주요한 제작 기법들로 정확한 동선의 계산과 계층화(layering)는 같은 공간에서 36명의 무한한 동작반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작품 <탱고>는 뚜렷한 내러티브 없이 움직임과 음악만으로 표현된 실험 애니메이션이다. 단지 고정된 카메라 앞에서 서로 다른 일상 속의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방에서 교차하며, 이를 단지 하나의 롱 테이크 쇼트로 보여준다. 완성된 필름은 라이브 액션의 각 프레임들을 철저히하고 집요하게 분해하고 재조립한 것이며, 이로 인해 사진 이미지들로 영화가 구성되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재개념화된 공간이 창조되었다. 좁은 방 안에서 교차하는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단절된 채 일상을 반복하는 소시민에 대한 알레고리다.<sup>26)</sup>

작품 탱고가 내포하고 있는 주제 의식의 주요한 기반은 동시대 현대인의 풍자이며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에 인간의 개인주의적 삶과 외면과 무관심 등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가 보다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영상구조와 실험적인 기법 때문이다.

소외와 의사소통의 단절은 주로 서로가 서로로부터 서서히 고립되어 하나의 개체로 존재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소외의 주제에서 감지되는 또 다른 영역은 알레고리와 연결되어 있다. 알레고리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탱고의 표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와 심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 사이에서 미학적 알레고리를 도출할 수 있다. 프레임의 분해와 재조립을 통해 자동화

---

25) IT용어사전 “크로마키(chroma key)”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http://www.naver.com)  
2014.01.0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60618&cid=361&categoryId=361>

26) <http://valley.egloos.com/viewer/?url=http://norby.egloos.com/4889458>  
2013.11.01.



된 의식 속에 기억되어 있는 외면적 기호를 표현하며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도 본질적인 의미는 공유하지 못하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반복적인 장면의 연속 속에서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 립친스키는 각 개인들이 서로 자신의 깊은 내면세계를 결코 완전히 펴 보이지 못하고 의사의 소통이 단절되어 가며 서로가 서로로부터 소외되어가는 아주 비판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외와 허위는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구조화된 체계로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발터 벤야민에 따르면 “상징은 초역사적이고 총체적인 특성을 띠며 알레고리는 역사적이고 파편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알레고리의 파편성과 특수성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인 구체적 사건을 표현하는 것을 벗어나 개별 사상과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알레고리로 표현된 대상은 더 이상 대상 그 자체와 동일하지 않은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성을 함축하게 된다. 작품 탱고에서 보여주는 알레고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동작을 하는 개인들과 비유기적이고 분해된 수많은 등장인물들은 서로 관련 없는 사건들이 나열되고 반복되면서 파편화되어있다. 이러한 벤야민의 알레고리적 방법론에 입각한 알레고리적 예술 비평의 현상 또한 파편 조각들 속에서 이루어진다. 알레고리의 파편적이고 불연속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알레고리적 인식은 형상들을 유기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되고 분절된 상태 그대로 모자이크와 같이 조합시키는 방식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알레고리적이다.<sup>27)</sup> 이는 의미 조합의 방식에 따라 작가의 의도와 더불어 관람자와 시대적 상황과 함께 다양한 의미가 생성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알레고리는 립친스키의 작품에서 근본적으로 일상적인 연관성의 파괴 그로 인한 기표와 기의의 불일치 방식에 그 특징을 두고 자의적인 해석을 이끌어낸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

27) 김미애, 「예술적 인식으로서의 알레고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4, p.8

무관한 듯 교차하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행위는 불일치의 미학에서 나온 알레고리의 현대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작품 탱고의 연출에서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는 반복이다 일상의 나열과 인물의 무의미한 반복이 이 작품 구성의 주요 기반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상 기법 역시 뚜렷한 내러티브 없이 병치와 반복 구조를 근본적 토대 위에 등장인물들의 무의미한 움직임으로 구성된 다. 반복을 통한 영상 구조는 작품 탱고에서 분주한 일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시간 인식과 명백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시간을 일상의 물리적 시간의 범주를 벗어난 초월적 시공간과 결합시키고 있으며 이 범주는 바로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시간과 대립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즉 작품 탱고가 경험하고 있는 무시간성은 특별한 시간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것은 리드미컬하고 정열적인 탱고 리듬과 함께 단절된 절대적 공간의 시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각적인 인상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는 효과음은 시각적 이미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효과와 대비되고 있다. 효과음은 시각적 조형미를 더욱 명료하게 드러나게 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상주의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립친스키는 이 작품이 현학적인 명제나 형이상학적 관념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제어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립친스키는 작품 전체의 흐름 속에서 주제의식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려 하는 시도는 자제하고 단순히 모티프들의 순차적 배열과 프레임들의 분해와 재조립을 통해 작품에 내포된 함의를 구축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관점이나 목소리가 작품의 구성 발전 및 전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절제하고 있다. 간결함과 객관성의 구현을 목표로 등장인물들의 움직임들을 각각 병치하고 나열하며 계속해서 객관적인 시점에 의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인지하고 있는 리얼리티에 대한 역설이기도 하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즈비뉴 립친스키 영상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표현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립친스키의 영상작품 중 탱고(Tango)를 중심으로 그의 영상작품들에 내포되어 있는 주제의 심층적 의미와 표현특성을 알레고리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립친스키 영상에 나타난 알레고리적 표현과 미학적 특성은 기존의 것이 계속 반복됨으로서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하는 것으로 이미지의 차용과 반복, 프레임들의 분해와 재조립을 통해 탈 중심적 성격을 통해 해체,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텍스트를 재생산해낸다.

알레고리는 추상적인 개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야기나 이미지가 중첩, 시간과 공간의 배치와 해체, 누적과 융합 등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는 텍스트로 사회·문화적 맥락과 결부되어 제3의 의미가 생성되며 작품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통해 본래의 의미보다 확장되며 동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립친스키에 나타난 알레고리가 형식적인 재현에서 벗어나 혼성모방과 이미지의 차용 등을 사용하여 작품 형식 이면에 감추어진 시간과 역사문화를 읽어내는 기능을 하며 영상의 숨겨진 의미와 속성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알레고리는 실험적 표현기법과 더불어 이미지와 영상구조에 새로운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고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관습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 실험애니메이션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애니메이션의 창작 영역을 알레고리 특성에 투영하여 실험애니메이션의 예술적 창작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존 A. 워커 John A. Walker & 사라 채플린 Sarah Chaplin, 『비주얼 컬처』, 루비박스, 2004, p225
- 진중권, 『현대미학강의』, 아트북스, 2004, p.59
- 윤난지,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크레이그 오웬스, 조수진 역, “알레고리적 충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을 향하여”, 눈빛, 2004, p.196~197
- Zbigniew Rybczyński, 『A Treatise on the Visual Image』, Art Stations Foundation, 2009, p.54
- 김미애, 「예술적 인식으로서의 알레고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4, p.8
- 권정임, “근대 미학적 ‘알레고리’ 논의의 포스트모던적 연속성과 현대성에 관한 연구”, 『미학·예술학 연구』, 26(2007), p.265~266
- 김길웅, “미적 현상과 시대의 매개체로서의 알레고리”, 『현대비평이론』, 14(1997), p.160~198
- 김민정, “다다주의의 실험적 조형성과 알레고리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2011), P.67
- 김민정, “미래주의의 실험적 조형성과 알레고리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1(2010), P.44
- 김민정, 최인영, “현대에 있어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형성과 알레고리의 관계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7(2006), p.50~51
- 남택운, “사진의 세 가지 경로와 알레고리”, 『한국사진학회지』, 26(2012), p.14
- 문철, “알레고리 해석에 의한 글 없는 그림책 구성 요소의 안티노미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3(2012) p.137
- 이령, “현대화예조형의 알레고리 연구”, 『한국 화예디자인학 연구』, 19(2008), P.164
- 임석원, “발터 벤야민의 영화 매체 이해와 알레고리”,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24(2011), P.263
- 홍창호, “현대회화에서의 알레고리와 복제 이미지 연구”, 『한국아동미술학회지』, 11(2012), p.46~48
- 두산백과 “알레고리(Allegory)”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http://www.naver.com) 2013.10.01.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1&contents\\_id=3991](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1&contents_id=3991)  
2013.10.01.

IT용어사전 “크로마키(chroma key)” 네이버 지식백과 [www.naver.com](http://www.naver.com)  
2014.01.0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60618&cid=361&categoryId=361>  
2014.01.05.

<http://valley.egloos.com/viewer/?url=http://norby.egloos.com/4889458>  
2013.11.01.

## ABSTRACT

### A study on the Allegory and Experimental presentation technique in Film by Zbigniew Rybczynski

Kim, yun-kyu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a case of allegory and experimental presentation technique in Film by Zbigniew Rybczynski . It is to analyse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fact that experimental animation carries diverse interpretation of contemporary art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ertain styl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allegory focused on film Tango which has expanded the field of experimental animation with the unique form of the film structure and technique.

Therefore, in this research, I would highlight the characteristic of allegory in Film by Zbigniew Rybczynski and research the experimental presentation technique that appears in experimental animation focused on "fragmentation" which are the expressive style of allegory.

Key Word : Animation, Allegory, collage

김윤경  
호서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교수  
(336-795)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Tel : 041-540-5844  
gamart@hoseo.edu

논문투고일 : 2014.02.01

심사종료일 : 2014.03.03

게재확정일 : 2014.03.03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Academic Research fund of Hoseo University in 2012(2012-0309)